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은 창조의 좋은 예입니다. 인터넷 만남은 더 많은 사람이 더 자주 만나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국가형제회는 상임위원회와 여러 위원회를 주, 월, 분기별 인터넷 모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정평환 위원회는 이민, 환경보호, 정평환 영성, 영성 교류 네 분야의 모임을 가졌고 많은 인터넷 양성 모임도 가졌습니다. 하와이 지구를 포함한 국가, 지역별 양성 워크숍을 열었고, 양성위원회의 ‘금요일 양성’에 호응하여 여러 주별 금요일 나눔도 있었습니다. 스페니쉬 양성봉사자들은 분기별 영상 모임을 가졌고 (한인 봉사자들도 모이면 좋겠지요?), 유프라 위원회는 젊은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애니메이터 수업을 매주 진행하였습니다. 국가형제회의 세 위원회는 여러 지구형제회장들과 정기 위원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모임들은 좋은 토의, 프란치스칸 개발, 관계 맺기의 훌륭한 창조적 결실을 맺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계속되어 국가상임위원회는 새로 선출된 지구형제회 위원들과 영상 모임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새로 선출된 지구의 지도자들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새 위원들의 에너지, 열정, 봉사의 열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새 재속 프란치스칸 봉사자들과의 만남은 저에게 축복이었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지구형제회에서의 봉사가 국가형제회에서도 계속 되길 바랍니다.



만남의 장애가 해소되어 여러 위원회가 활성화되었습니다.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영성보조자 지침 개정과 새 데이터 베이스 작업 등 여러 프로젝트를 위한 주별 모임이 있었습니다. 영성 계획팀은 2021년 여러주 만나 영성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7명으로 늘어난 웹팀은 매주 트레이닝과 국가형제회 웹사이트 개선에 관한 의견을 위해 만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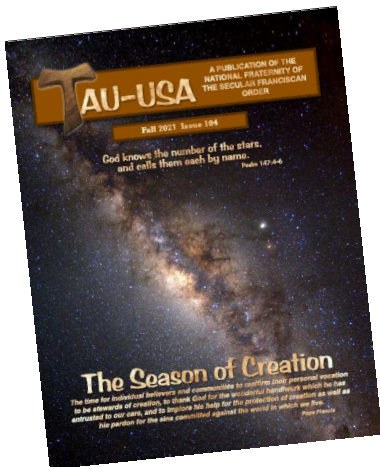
올해 결성된 두 구룹에 기대가 큼니다. 지역 다양성과 Accessibility 위원회입니다. 이 두 구룹은 타우지에 소개되었습니다. 다른 지구에도 비슷한 구룹이 결정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프란치스칸 가족과 만나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종파 위원회는 다른 교회와 전례의 프란치스칸 친척들과 프란치스칸 일치 위원회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수사, 수녀, 재속회원들이 매달 영상으로 프란치스칸 가족 포럼을 가졌습니다. 프란치스칸 액션 네트워크는 ‘정의 사회’를 조직하였습니다. 많은 재속 프란치스칸들이 이러한 여러 지역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칸 카리스마에 자극받은 이러한 구룹들은 사회와 환

경 정의를 구현코자 모였습니다. 프란치스칸 액션 네트워크의 새 책임자로 재속 프란치스칸 미셸 던 자매가 임명되었습니다. 평화와 정의 분야의 풍부한 국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매와 곧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 넓은 프란치스칸 가족들이 찬미받으소서 웨비나에 참석하였습니다. 국제형제회는 저희 정평환 위원회에 웨비나를 위한 비디오 준비를 요청하였고, 우리 다문화 위원이 자료를 스페니쉬로 준비하였습니다.

미국형제회는 프란치스칸 연맹이 개최한 첫 영상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시대의 증표에 부응하고 ‘프란치스칸 르네상스’를 이끌기 위하여 연맹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더 넓은 프란치스칸 가족이 이러한 쇄신에 참여하였고 국가형제회는 관계된 많은 도움 행사를 주관하였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프란치스칸들이 함께 일하라는 부름에 눈을 뜨게 하여 교회와 세상을 재건에 참여하게 합니다.



물론 가상이 아닌 것도 있었습니다!

영감, 영속적 양성, 소식의 보물 상자인 여러분 집에 배달되는 타우지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웹에도 있지만, 형제회에 관심있는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잡지입니다.

하느님과 서로에 관한 우리의 사랑 역시 정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관계를 증진하고 책임을 나누고 형제회를 일과 희생, 영속적 양성을 통한 배움과 성장, 북



음 생활화에서 우리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인터넷 모임을 통하여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지만, 서로 함께 하는 경험을 대체할 수는 없고, 곧 만날 수 있는 날을 고대해 봅니다.

함께함은 기도와 양성과 성장을 풍부하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더욱 긴밀해지고 가상의 대화와 형제적 대화가 되고, 서로에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지금의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방법으로 우리 형제회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인내의 덕을 더 발휘하고 은총을 청해야 하겠습니다. 좀더 자애롭고 이해하여야 하겠습니다. 최악의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서로 용서해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현실에서도 기쁨과 희망의 전달자가 되어야 우리는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지난 해 희망은 확실히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